



## 한국전쟁과 기독교, 1950~1953

Korean War and Christianity, 1950~1953

---

저자 (Authors)	김흥수 Kim, Heung-Soo
출처 (Source)	<a href="#">종교문화연구</a> , (2), 2000.4, 29-49 (21 pages) <a href="#">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a> , (2), 2000.4, 29-49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구 한신인문학연구소)</a> Center for Religious and Cultural Studies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37919">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37919</a>
APA Style	김흥수 (2000). 한국전쟁과 기독교, 1950~1953. <a href="#">종교문화연구</a> , (2), 29-49.
이용정보 (Accessed)	성공회대학교 220.149.***.50 2018/02/05 04:1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전쟁과 기독교, 1950-1953

김 홍 수\*

<차 례>

I. 전쟁 직전의 교회 상황

II. 전쟁지원 활동

III. 전쟁지원의 설명체계

IV. 한국전쟁에 대한 세계교회들의 입장

한국전쟁은 자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전쟁은 처음에는 북조선과 남한 사이의 싸움이었으나 곧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중공 의용군과 인민군 대 유엔군과 국군간의 국제적인 대전으로 확대되어 갔다. 3년 동안 한국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들 역시 이 전쟁에 깊이 간여하였는데, 교회 역시 정치 집단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보다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한국전쟁에 대한 반응과 지원 활동을 달리 했다. 이 글은 한국전쟁을 지원하거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 남한 및 북조선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당시 기독교회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와 얽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I. 전쟁 직전의 교회 상황

교회는 한국전쟁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1900년대를 전후하여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일전쟁(1894-1895)과 노일전쟁(1904-1905)을 겪었고 일제 식민지 시기 말기에

\* 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수

© 『종교문화연구』 제 2 호, 2000, pp. 29~49.

는 태평양전쟁(1941-1945)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물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전쟁을 지원하게 된 것은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였다. 교회의 이같은 전쟁지원 활동은 한국전쟁에서도 나타났으며 이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데올로기의 대립 때문에 이전의 전쟁 지원 활동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전쟁에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그리고 남한과 이북의 교회가 전쟁에서 상이한 입장을 취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5년 이후 몇 해 동안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종교와 국가 관계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해방 직후부터 국가 재건의 이상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새로운 국가건설의 전개과정 초기부터 남한과 북조선 두 지역 모두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활동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활동은 정당을 결성하는 일에서부터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기독교 단체의 결성, 정치계에의 투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북에서는 윤하영과 한경직 목사가 주도한 기독교사회민주당(1945)과 조만식 장로를 대표로 한 조선민주당(1945)이, 서울에서는 박용희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민주당(1945)이 조직되었으며 서울의 기독교민주동맹(1947), 기독교신민회(1945), 그리스도교연맹(1947), 그리고 평양의 북조선기독교도연맹(1946) 같은 교회의 정치참여를 목표로 한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나 정치적 색채가 짙은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해방 직후의 정치현실에 가담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정치활동에 직접 나서지는 않으면서도 강연이나 설교 또는 글을 통해 정부수립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구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sup>1)</sup>

이들은 국가재건에 동참하기 위한 종교인들의 사회참여를 촉구하였다. 해방 직후 월남한 한경직 목사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기독교적 이상에 의해 건국되기를 염원하면서 “우리가 삼십여 년간 ‘일본’의 포악한 정치 밑에 종이 되었을 때에는 정치는 우리가 운위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된 오늘날 나라를 다시 찾아 나라의 주인공이 된 우리로서는 누구나 다 정치에 관여하여 국가의 흥륭을 기대하는 것

1) 1945년 9월 김재준 목사는 서울의 한 교회 집회에서 “기독교와 건국이념: 국가구성의 최고 이상과 그 현실성”이란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조건부로 제시하였다. 김재준, 『장공 김재준 저작전집 2』(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1), p. 27, 47.

이다”<sup>2)</sup>라고 했는가 하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 강양욱 목사는 1947년 종교와 정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일체 치하에서 종교와 정치는 전혀 별개이어야 했”으나 이제 “민주국가의 모든 시민과 조직은 좋은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분단 직후부터 남한과 북조선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두 사람의 말은 조국건설의 과업에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크게 달랐다. 한경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국의 이상으로 삼았다면, 강양욱은 사회주의 체제를 건국의 이상으로 삼았다.

이북에서 월남한 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한교회 지도자들은 이차대전 이후 대외전략의 원칙인 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미국 스타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선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한경직은 “기독교와 정치”(1946), “건국과 기독교”(1947) 같은 글들에서 미국을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세계에 제일 축복 받은 평화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기독교적 이상에 의하여 재건되기를 염원했는가 하면, 기독교가 반드시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격파’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sup> 한경직의 이같은 반공적 입장은 1947년 2월 서울에서 민족주의 좌파 김창준 목사가 계획하고 있던 기독교민주동맹의 결성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은 1947년 이후에는 이미 반공사상이 남한교회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남한교회의 이런 반공 분위기는 대중집회를 통해서 날로 확산되어 갔다. 한국기독교협의회(NCC)의 모체가 된 조선기독교연합회(1946년 9월 조직)는 1949년 미군이 철수할 때는 서울운동장에서 10여만 명의 군중을 동원하여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반공 기독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sup>5)</sup> 당시 이 연합회에는 구세군,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뿐만 아니라 국내 각 선교회와 교회 관련 연합기관들이 가입해 있었다. 한편 이북에서는 1940년대 후반에 이르면 기독교도연맹이 교권을 장악하고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이한 입장은 전쟁 지원 활동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2)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보림원, 1949), p. 140.

3) 안나 루이스 스트룅, “기행: 1947년 여름”, 『해방전후사의 인식 5』(한길사, 1989), p. 516.

4) 한경직, 앞의 책.

5) 유호준, 『에큐메니칼 - 한국기독교연합운동』(한국기독교연합회, 1958), pp. 6-19.

## II. 전쟁지원 활동

해방 직후부터 활발해진 남북한 교회들의 정치참여와 국가건설에 대한 구상은 1950년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교회가 속해 있는 정부에 대한 전쟁지원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오랫동안 교회가 지녀온 종교와 민족의 결합적 성격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며 정부에 대한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시의 교회활동이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결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쟁 중 북조선교회는 전승 기도회를 통한 정신적 지원과 무기 구입을 위한 헌금을 하였다면, 남한교회는 정신적 지원과 함께 직접 의용대를 모집하였으며 유엔과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에서 남한이 승리하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북조선교회의 전쟁지원 활동은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인민군의 서울 점령 직후 평양에 모여 서울 탈환 환영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1950년 8월 5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는 북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들과 각 지구 기독교도연맹 대표들 그리고 이북 전역의 목사, 장로, 전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쫓겨대회를 열고 이북의 기독교도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8월 13일에는 북조선 전지역에서 전승 기도회가 열렸다.

기독교도연맹의 전쟁 지원은 이같은 정신적 지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연맹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 무기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헌납운동도 전개했다. 기독교도연맹 총회 초대 총회장을 지낸 황해도 신천 서부교회의 김익두 목사가 비행기, 탱크, 함선 기금 10만원을 헌납한 후 무기 구입 헌납운동은 각지 교회들로 확산되어 갔다. 8월 5일의 기독교교역자 쫓겨대회에서는 “불의와 죄악을 제거하기에 어떤 것도 아끼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고 정의로운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영웅적 우리 인민 군대에게 비행기 탱크 함선을 더 많이 헌납하기 위한 기금 거들 운동을 교도들 사이에서 더욱 맹렬히 전개하자!”고 호소한 바도 있었다.<sup>6)</sup> 이러한 일들은 1950년 10월 남한군과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하기 전 이북교회에서 일어난 전쟁 지원 활동들이었다. 북조선교회 지도자들은 전쟁지원과 협력을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와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쟁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sup>7)</sup>

6) 「로동신문」, 1950. 8. 7; 김홍수 엮음, 『해방후 북한교회사』(다산글방, 1992), pp. 498, 502-503.

7) 북한교회의 전쟁지원 활동은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쟁 초기인 1950년

전쟁시 남한교회의 지원 활동도 북조선교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쪽의 교회는 남한정부와 국군을 지원했으며 기존의 조직 대신 대한기독교구국회 같은 새로운 조직을 결성해 전쟁지원 활동에 나섰다. 1950년 7월 3일 피난차 대전에 내려온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기독교구국회를 결성한 일이었다. 대한기독교구국회는 초기 아군의 지속적인 후퇴에 따라 본부를 대구, 부산으로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이 단체는 선무, 구호, 방송 같은 일을 파제로 삼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독교청년들을 모집하여 전선으로 내어 보내는 일이었다. 대한기독교구국회는 3천 명의 지원병을 모아 군부대에 배치시켰으며,<sup>8)</sup>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후 서울을 탈환하고 계속해서 북으로 진격해 올라가자 기독교구국회는 선무공작 대원 약 1천 명을 훈련시켜 국군의 점령지역에 파송했다.

1950년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다음날 중앙청 광장에서는 이승만과 맥아더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복 기념식이 열렸다. 이 기념식에서 맥아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면서<sup>9)</sup> 한국전쟁을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항하는 일종의 십자군 전쟁으로 보았다. 10월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북진을 계속,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평양에 거주하고 있던 박대선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과 유엔군의 평양 진주는 “8·15의 기쁨과 희망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해”준 사건이었다.<sup>10)</sup> 10월 25일 평양에서는 남한의 고위관리들과 군 지

7월 10일 김창준 목사를 포함한 기독교도연맹 대표들은 서울에 올라와 좌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47년 서울에서 결성되었다가 활동이 중지된 ‘기독교민주동맹’을 재건했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수복과 함께 다시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 8) 이들 3천여 명의 기독교 의용대는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이”를 군가로 제정하고 교회에 수용되어서 계성학교와 신명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투경험이 없으므로 카투사부대 및 육군 통신학교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의용대의 교문, 대장, 부대장 등 임원들은 한경직, 김병섭, 황금천, 필요일, 안병국, 손두환, 임병덕 등 목사와 장로였다. 김병섭, “십자군 의용군 시절”, 『교회연합신보』 1984. 7. 8.

대한기독교구국회는 국군과 유엔군의 북한 점령 당시 국방부의 요청으로 280명의 기독교인을 북한에 보내 점령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김성준, “6·25와 대한기독교구국회”, 『한국기독교공보』, 1984. 6. 30.

이와 같은 병력 지원은 가톨릭교회에서도 시도되었다. 1950년 8월 10여 명의 젊은 신부들이 신부, 신학생, 신자 등 3천여 명을 모집하여 가톨릭 청년 결사대를 조직하려 했으나 무기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었다. 강인철,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교회와 국가”, 오경환 외, 『교회와 국가』(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7), p. 634.

- 9) 김인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독학협회출판사, 1963), p. 85.

회관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탈환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월남한 장로교의 교역자들 가운데 이인식, 윤하영, 한경직, 김양선, 고한규, 이대영 목사 그리고 아담스(Edward A. Adams), 보켈(Harold Voelkel) 등 장로교 선교사 다섯 사람이 이북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선교활동과 선무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들 말고도 장로교의 황은균, 강원용, 조항록 목사 등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북조선 지역에 선무대원으로 또는 선교 책임자로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했다.<sup>11)</sup>

남한교회의 사절단이 평양에 도착한 후 10월 29일(일요일) 시내 교회는 일제히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으며, 오후 2시에는 약 3천 명의 신도가 서문밖교회에 모여 사절단 환영예배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 예배에서 한경직 목사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을 텍스트로 삼아 설교했으며 신도들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불렀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성경을 들고 부흥회와 기도회에 몰려들었다. 이런 기도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으며, 당시 평양 지역의 정보장교로 일했던 선우희의 소설에서 묘사된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평양 기독교 신자들이 제2의 해방과, 그 해방군으로서의 국군과 유엔군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부흥 기도회”였다. 40여일 동안 선교사와 한국인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해방이 온 것으로 생각했다. 유엔군은 구원자들처럼 환영받았다.<sup>12)</sup>

이러한 기도회나 부흥회가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을 때 중공군이 남하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군의 전쟁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가 시작되자 이에 놀란 방북 목회자들은 다시 서둘러 월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동적인 전황을 무시한 조급한 선교활동과 남한 지지를 유도하는 활동들은 중공군의 참전과 함께 전세가 역

10) 박대선, “내가 겪은 6·25”, 『크리스찬신문』, 1969. 6. 21.

11) 김용복은 박용의, 한경직, 윤하영, 유호준, 김양선, 권세열(Francis Kinsler)이, 전필순은 박용희, 한경직, 황은균, 아담스, 김형도, 강원용이 국군과 함께 북한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 김용복, “민족 분단 속의 기독교”, 『한국사회와 기독교』(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4), p. 281 그리고 전필순, 『붉은 사슬을 끊고서』(삼우사, 1963), p. 105 참조. 유엔군의 이북 점령 기간 동안 이북에서 활동 한 선교사들에 관해서는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Volume II*(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3), pp. 100-103 참조.

12) Harold E. Fey, “Signs of Recovery in Korea”, *The Christian Century* (December 12, 1951), p. 1508; Rhodes and Campbell, eds., 앞의 책, pp. 100-103; 선우희, 『노다지』 3(동서문화사, 1986), p. 176; 백정언, 『남북한기독교사론』(민중사, 1997), p. 269.

전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대다수 교인들도 유엔군 환영과 지지 행위로 그들을 따라 월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남아있던 교인들은 북조선의 적대세력으로 인식되어 이 북사회에서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남아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고, 첫 후퇴 시에는 서울 등지에 남아 있던 교회 지도자들도 1951년 1·4후퇴 시에는 모두 남으로 피난하여 대구 부산 등지로 몸을 피하였다. 1950년 6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직전 서울을 떠난 주민은 서울 인구 160만 명 중 10만 명만에 불과했으나 1·4후퇴 시에는 1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울을 떠났다.<sup>13)</sup> 이들 피난민들은 부산 지역을 향해 떠났다. 교회 지도자들 역시 1951년에는 남북 당한 인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산에 모이게 되었다. 마침내 1951년 1월 9일 부산 중앙교회에서는 기독교 연합 전시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sup>14)</sup> 이 위원회는 먼저 미국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 전달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도탄에 빠져있는 민족을 구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교회에 한국 정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장로교의 한경직과 감리교의 유형기를 미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대중집회를 통한 남한교회의 전쟁지원 활동은 1950년 이후 휴전이 임박한 무렵까지도 계속되었다. 195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각 교파 연합신도대회는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을 “세계 민주주의 자유국가들과 공산독재 국가들과의 양진영 사이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최후결전의 전초전”으로 단정하고 “한국땅 위에서 일으킨 양 진영의 최후결전을 유엔군의 승리로 마칠[마칠] 때까지 진전무퇴”할 것을 정부와 유엔군에 요청하였다.<sup>15)</sup> 이러한 집회는 휴전이 논의되고 있던 1953년에도 열렸는데, 1953년 6월 14일 서울 기독교인들은 탑골공원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진통일 기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에서는 6월 15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기독교신도 구국대회가 열렸다. 인천과 청주, 광주에서도 열린 이 집회들에서는 교회의 휴전반대 입장을 세계교회들과 미국대통령 등에게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3)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84), p. 193; Harold E. Fey, “Will Korea Perish”, *The Christian Century* (January 16, 1952), p. 67; 같은 필자, “How Refugees Are Made”, *The Christian Century* (January 23, 1952), p. 99.

14) 회장에는 한경직 목사, 부회장에 류형기(감리교), 김창근(성결교), 황종률(구세군), 총무에 김양선(장로교)이 선임되었다.

15)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p. 89.



부산에서 열린 구국신도대회는 세계교회에 보내는 성명서에서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최근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안에 대하여 한사코 반대”한다면서, “「한국통일」은 공산주의와의 유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굴복 시킴으로써 성취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천명, 남한 정부의 휴전반대 입장을 지원해 주었다.

알타협정으로부터 미소 공위까지의 역사와 6·25사변으로부터 판문점 휴전회담까지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공산주의와 유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은 폭력을 내놓고,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에 그들은 증오를 가르치고, 우리가 자비를 말하면 그들은 무자비를 토한다. 그들과의 타협을 권고하는 것은 광야 40일간의 시련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귀와의 타협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역사의 진로를 후퇴시키기 위하여 왜 자유세계는 공산주의와 유화하여야 하며 그 제물로 한국이 희생되라고 요구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 곤란해하는 바이다. 이러한 유화의 결과로 올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박해며, 민족운명의 파멸이며, 세계질서의 파괴이며, 인간양심의 종언일 따름이다.<sup>16)</sup>

구국신도대회의 휴전반대 입장은 1953년 미국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에게 보내는 성명서에서도 드러났다. 성명서는 아이젠하워가 공산주의와의 유화를 통해 한국에서의 휴전을 성취시키려는 노력에 대하여 “심대한 실망”을 느끼고 있다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설복될 수 없는 마귀”가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선의의 죄인”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sup>17)</sup> 이미 미국은 중공에 대한 유화정책 때문에 중국 인민을 공산진영에 넘겨준 바 있는데 중공정책에서 실패한 허물을 “대속”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옹호자가 되려면 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교회나 남한정부의 입장이었다.<sup>18)</sup> 휴전을 반대하는 교회의 입장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호전적인 경향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산도당의 사고(思考)는 무신적이고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악마의 대행자이므로 그들을 상대해서 휴전을 약속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는 충고로 이해되었다.<sup>19)</sup>

16) 위의 책, pp. 141-142.

17) 위의 책, pp. 142-143.

18) 백낙준, “한국전쟁과 세계평화”, 「사상계」(1953. 6), pp. 9-10.

19) 전필순, 『목회여운』(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65), p. 140. 신도대회를 전후하여

남한사회가 미국과 유엔에 의지해 북조선과 대결하고 있을 때, 북조선에서는 유럽에서 열리고 있던 세계평화옹호자대회에 대표를 보내 미국의 북조선 공격과 그것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은 평화운동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1948년 8월 폴란드의 우크로우에서 개최된 ‘평화와 과학을 지키는 국제 지식인 회의’를 기점으로 1949년 4월에는 세계평화옹호자대회가 파리와 프라하에서 개최된 바 있었다.<sup>20)</sup> 북한이 언제부터 이 대회에 참석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전쟁 발발 후인 1952년 1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대회에는 김창준 목사가 참석하였다. 그는 이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미국을 비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 북반부 각지에 있던 수많은 교회당들을 한개도 남기지 않고 다 폭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제1, 2교회당에서 기도를 하던 신도 250여명을 기총 소사와 폭탄으로 무참히 살육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sup>21)</sup>

### III. 전쟁지원의 설명체계

종교는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많은 경우들에서 종교는 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중세기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과 더 최근의 식민지 확장을 위한 유럽의 전쟁들에서처럼, 종교적 정당화의 방식은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라는 요청, 전투에서 사망하는 병사들을 위한 내세의 약속 그리고 전쟁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묘사하는 윤리적 이원론 등으로 나타났다.<sup>22)</sup>

이원론에 의해서 적의 타자성이 철저히 강조되며 적의 희생이 허용되고 합법화된다. 이원론은 적을 비인간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군의 병사에게는 살인행위에 대한 죄의식, 공포, 동정 같은 인간적 경향들을 제거해 준다.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전쟁이었으며 따라서 이 전쟁에서는 어느 전쟁보다도 선과 악의 이원론을 통해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명을 걸도록 할뿐만 아니라 적의 생

---

이 대회 비용의 외부 지원설이 유포되었다. 이에 대해 NCC 유호준 총무는 교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았음을 밝혔다.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전국 대도시에서 조직적으로 집회가 열린 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사를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볼 때 정부가 이 집회들의 행사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독교공보』, 1953. 6. 22, p. 29 참조.

20) 최정호,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미래 M&B, 1999), pp. 282-284.

21) 허정숙,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되새기며』(로동당출판사, 1989), p. 289.

22) C. Scott Littleton, “War and Warriors”, Mircea Eliade,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15(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 340.

명을 빼앗도록 설득하는 종교의 역할을 필요로 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남한정부 지도자들은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쟁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일 그리고 전쟁에 이긴다는 끊임없는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당시 문교부장관 백낙준은 집, 도시, 공장 같은 것은 파괴된 후에 다시 재건할 수 있고 또 재건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국민으로서 살아나가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그것을 한국의 “외곽”이라 불렀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벽 Inner Citadel”이며 그것은 “우리 국민의 본연의 자태이며 우리의 국민의 정신, 윤리, 지성, 의무감이며 정신적 탄력성이다. 전쟁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있는 점이며 전쟁에 이긴다는 끊임없는 신념”이었다.<sup>23)</sup>

전쟁이 나자마자 남북한 교회는 상대방을 선과 악의 이원론을 통해서 보면서 이 내적 성벽을 지키는 일에 나섰다. 북조선기독교도연맹에 소속된 북한교회들은 궤기대회와 전승 기도회를 통하여 남한정부와 미군을 “악마”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기를 기원하였다. “만고역적 리승만 도당과 침략자—미제국주의 악마들에게 준엄한 하느님의 저주가 있으라!”<sup>24)</sup> 북조선교회의 미국에 대한 분노는 남한에 대한 분노보다 더욱 강열하였다. 북조선교회는 각종 기도회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위선자이며 교활한 기만자이며 음흉한 침략자”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극한 배신자—유다의 화신”으로 표현하였다.

이북교회에서 일어난 전쟁의 정당화 활동들은 전쟁 직후 남한교회에서도 일어났다. 남한교회는 전쟁의 발발과 그로 인한 비극의 원인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교회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계시록의(6:3-4) “붉은 말”을 탄 자나 적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였다. 이같은 사탄론의 대두는 19세기 미국에서의 남북 전쟁이 기독교인들에 사탄에 대한 믿음의 강도를 더해 주었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었다. 사탄론의 대두는 1953년에 절정에 달했다.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직전인 6월 15일 기독교연합회(NCC)가 부산 충무로광장에서 개최한 신도대회는 세계교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휴전반대 성명서에서 한국의 전 기독교도들이 “마귀의 승리를 초래할 휴전을 반대하는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다”면서, 공산주의를 “설복될 수 없는 마귀” “영구히 회개할 수 없는 마귀”로 표현하였다.<sup>25)</sup>

사탄론에 대한 담화는 천주교회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개신교의 사탄론이

23) Robert T. Oliver, *Verdict in Korea* (State College, PA: Bald Eagle Press, 1952), p. 154.

24) 『로동신문』, 1950. 8. 7; 김홍수, 앞의 책, pp. 500-503.

25) 김양선, 앞의 책, p. 141, 143.

대중집회나 성명서를 통해 나타난 것과는 달리 천주교에서는 주로 교회 기관지의 논설을 통해서 나타났다. 천주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 즉 “양을 가장한 일회[이리]의 아편에 중독된 동족 아닌 동족이 가능한 온갖 악마적 방법을 다하여 빚어낸 참극”이었다. 이 전쟁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사상전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교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반(反)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전쟁”이요 “무신론 폭군에 대한 신앙자유 수호의 십자군전쟁”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곧 그리스도교의 경계선”이다. “사탄의 괴뢰집단”, “악마의 붉은 괴뢰”, “적색 레비아탄”, “공산 악귀”가 이 경계선을 침입했으므로 그들을 격멸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쟁은 멸공전이자, 거룩한 전쟁이며, 천주교인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sup>26)</sup>

북조선교회에게는 한국전쟁이 “미제국주의 악마”와의 전쟁으로 이해되었으며, 남한교회에게는 “세계 민주주의 자유국가들과 공산독재 국가들”간의 이데올로기 전쟁, 즉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며 원리와 원칙을 세우기 위한 정의의 싸움”<sup>27)</sup>이면서도 “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보였다. 특히 남한교회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신 대 악마의 투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만만한 싸움”을 전개할 수 있었다.<sup>28)</sup>

천주교든 개신교든, 흔히 보수교회와 진보교회 간에는 교회의 사명을 다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지만, 한국전쟁 시기의 남한교회는 공산주의를 도덕적, 종교적 적으로 묘사하는데 있어서 일치하였다.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북조선 공격을 지지했으며, 휴전을 위한 북조선과의 타협과 협상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같이 종교적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신도들에게 전쟁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싸우도록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용기를 주는 기능을 했지만, 전쟁의 참상에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것의 원인과 책임을 설명해 주는 일종의 이론이

26) 『천주교회보』, 1951. 1. 14: 1; 1950. 11. 10: 1; 1953. 1. 15: 1; 강인철, “한국전쟁기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발전에 대한 종교인의 기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pp. 211-214.

27) 백낙준, 앞의 글, p. 7.

28) 김양선, 앞의 책, p. 131.

기도 했다.<sup>29)</sup>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의 원인을 미국과 미국의 협력자들에게 돌리고 한국전쟁을 “정의의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함으로써<sup>30)</sup> 이북 주민들에게 전쟁의 참상에 대한 설명체계를 제공하였다.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참상의 원인을 “철천지 원수” 미국의 침략 야욕에서 찾는 이 설명은 전후의 북조선에서는 반미, 반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미제국주의’란 말은 “야수, 식인종 또는 이리”라는 개념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 있으며,<sup>31)</sup> 미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남한이 어둠의 땅이라면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은 어둠에 대한 빛의 투쟁, 즉 거룩한 투쟁이다. 이처럼 북조선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는 전후에는 ‘성(the sacred)’과 연관된 이데올로기로 발전해 갔으며, 이 이데올로기에서 한국전쟁은 일종의 ‘원형(archetype)’과 같은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남한교회의 설명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전쟁에 대한 교회의 설명은 공산주의자들이 “적색 레비아탄” 또는 “마귀”라는 가정에 근거해 있었다. 이 가정에 근거해서 교회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산주의와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국내외에서 역설하였다. 남한교회의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난 것은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서였다. 공산 국가의 교회 대표들도 참석한 이 총회에서 공산국가들과의 공존 문제가 논의될 때 명신흥, 김현정, 유호준 등 한국대표들은 공산주의자와의 공존을 절대 반대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다.<sup>32)</sup> 한국교회의 이런 태도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in USA)

29) 바쿰(Michael Barkun)은 이것을 “a theory of mistakes”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 주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는 일련의 주장들”로 정의하였다. Choe, Joong-Hyun, “The Korean War and Messianic Groups: Two Cases in Contrast”. Ph. 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1993, p. 71에서 재인용.

30) 김한길, 『현대조선역사』(일송정, 1988), p. 273.

31) 김희일, 『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기획출판 한, 1991), p. 266.

32) 『기독교보』, 1954. 9. 13; 1958. 12. 29. 명신흥 목사는 이 총회의 토론회에서 한국이 십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산주의야말로 모든 종교를 말살하려는 전세계적인 제국주의라면서 총회 보고서에 들어 있는 “반공주의자들의 히스테리”와 “공존”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Myung)씨는 한국이 십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산주의야말로 모든 종교를 말살하려는 전세계적인 제국주의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공존’이라는 말과 ‘반 공적 히스테리’라는 말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파티엔 박사는 삭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삭제할 경우 문서의 의미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제4분과 위원회 보고서에서처럼) ‘공존(co-existence)’이라는 말 대신에 ‘함께 살기(living together)’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데는 동의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 위음

가 1958년 공산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맺은 동시에 중공을 승인하라는 결의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을 때에도 드러났다. 이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는 실행위원회를 소집,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궤멸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침략자와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33)</sup>

교회에서 전시에 공산주의자들을 사탄시한 것은 교회가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교회에게는 남북간의 전쟁은 일종의 십자군 전쟁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남북분단 직후부터 공산주의를 사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북조선에서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1946년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행한 공민증을 “적 그리스도 짐승의 표”라하여 교부 받기를 거절했으며 남한사회에서는 월남 교역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사탄으로 규정하였다. 예컨대, 1945년 월남한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설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이야말로 “목시룩에 있는 붉은 용”이라면서 “이 용을 멸할 자 누구냐?”고 물었다.<sup>34)</sup> 이처럼 그는 공산주의를 성서에 나오는 “붉은 용”과 동일시하면서 그것과의 대결을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하였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길선주나 이명직 같은 전천년왕국설 신봉자들이 공산주의를 말세의 징조나 사탄으로 보고 있었지만,<sup>35)</sup> 이 주장은 전시에 는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전쟁을 정당화해 줌으로써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살상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경감시켜 주는 요소로 그리고 전쟁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이용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산주의 사탄론은 남한교회에서 반공적 신앙으로 그리고 남북한이 공유하는 과거의 민족사적 동질성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하는 반공적 민족주의로 발전해 갔다. 남한사회와 교회의 반공의식의 확산은 신학적 이유 외에도 전쟁을 통한 공산주의 체험, 1945년 이후 북한에서 겪은 종교활동 제한이나 탄압의 경험, 교회 지도자들의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호감 등과도 관련되지만,<sup>36)</sup> 1945년 귀국한 이승만의 정치적 입장과도 연관된 것이었

(이형기 옮김),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 종합보고서』(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135.

33) 『기독교공보』, 1958. 12. 29.

34) 한경직, 앞의 책, p. 212.

35) 길진경 편, 『영계 길선주 목사 유고 선집』 제1집(대한기독교서회, 1968), p. 64; 이명직, “적룡은 무엇인가”, 『활천』(1938. 10), pp. 1-2.

36) 김경재, “분단시대 기독교와 민족운동”,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민족주의와 기독교』(민중사, 1981), p. 103.

다. 그의 반공의식의 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공산주의 이론에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미국식 민주주의만을 부러워하였다. 둘째로, 그의 반공의식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간에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공산주의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sup>37)</sup>

남한사회에서의 반공은 일종의 민족적 구원론이었는데, 반공적 태도는 전시의 “피부에 찢린 총검”과 “눈앞에서 목도한 살상과 동족간의 불신”을<sup>38)</sup>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는 김재준 목사의 경우인데, 그는 1945년 9월 서울의 한 집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상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만일 사상과 종교 등의 자유만 보장한다면 공산주의자들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었다.<sup>39)</sup> 그러나 김재준은 한국전쟁을 겪은 후 쓴 글에서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는 1953년에 쓴 논문 “공산주의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인도, 영국 등에서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하여 「어떻게」하고 어느 정도 동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상적인」 장난을 즐기는 것이다. 「공포」와 「숙청」과 전연 「자유가 거부된」 그들 밑에서 자유인으로 어찌어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우리가 만일 「인간」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무엇을 운위하기 전에 벌써 「질식」해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고장이 그들의 「산하」인 까닭이다.<sup>40)</sup>

#### IV. 한국전쟁에 대한 세계교회들의 입장

전쟁에 대한 입장 표명과 지원은 세계교회들로부터도 나왔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인민군의 남침 소식이 알려지자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국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 Statement on the Korean

37) 진덕규, “이승만 시대 권력구조의 이해”,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pp. 14-15.

38) 민경배, “6·25의 한국교회사적 의미”, 『기독교사상』(1976. 6), p. 31.

39) 김재준, 앞의 책, pp. 27-42.

40) 위의 책, p. 302.

Situation and World Order”을 발표하였다.<sup>41)</sup> 이 성명서는 정부들이 협상과 화해에

---

41) World Council of Churches, *Minutes and Report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orld Council of Churches, 1950), pp. 91-92 그리고 *Christianity and Crisis* (August 7, 1950), p. 105에 실린 이 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flict in Korea reveals the precarious natur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 toda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xpresses its deep concern and calls upon its members as a world-wide Christian fellowship to pray for Korea, where guilty and innocent suffer or perish together, and to bear witness to Christ as Lord of all Life and as Prince of Peace.

An act of aggression has been committe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in Korea, the most objective witness available, asserts that “all evidence points to a calculated, coordinated attack prepared and launched with secrecy” by the North Korean troops.

Armed attack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is wrong. We therefore commend the United Nations, an instrument of world order, for its prompt decision to meet this aggression and for authorizing a police measure which every member nation should support. At the same time, governments must press individually and through the United Nations for a just settlement by negotiation and conciliation.

The enforced division of a people in Korea or elsewhere is a bitter result of the divided world. It violates fundamental rights and increases the threat to peace. The United Nations has attempted to establish a free, united and independent Korea within the community of nations. Every opportunity which may arise from the present tragic situation must be used to gain this end.

The Korean situation need not be the beginning of a general war. We must not regard world-wide conflict as inevitable. Any tendency to irresponsible fatalism should be resisted. We stand for a just peace under the rule of law and must seek peace by expanding justice and by attempting to reconcile contending world powers.

Post-war totalitarianism relies not only on military pressures but also upon a policy of exploiting the distress of the poor, the resents of subject peoples, discriminations on grounds of race, religion or national origin, the chaos of badly governed nations, and the general disunity between nations. The Korean attack may well be one of a possible series of thrusts at such weak points in world society. Since the world is still filled with these injustices and disorders, a mood of complacency is both wrong and politically dangerous. Overcoming the evils i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means for rendering the world morally impregnable to totalitarian infiltration.

Such methods of modern warfare as the use of atomic and bacteriological weapons and obliteration bombing involve force and destruction of life on so terrible a scale as to imperil the very basis on which law and civilization can exist. It is therefore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명서는 전쟁에 대한 평화주의 입장을 가진 중앙위원회 위원 두 사람이 기권한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러나 공산권 교회를 대표하는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처음으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충돌은 오늘날 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세계교회협의회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전세계 기독교 친교로서의 회원교회들이 범죄자와 결백한 자들이 함께 고난 당하거나 죽어 가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과 모든 생명의 주님인 그리고 평화의 왕자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한다.

침략행위가 저질러졌다.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인인 유엔 한국위원회는 “모든 증거는” 북조선 인민군에 의해서 “비밀리에 준비되고 시작된 계획적인, 조정된 침략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국가정책의 도구로서의 무장 공격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서서 신속한 결정을 취해 줄 것과 모든 회원 국가가 지지하는 군사적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권고한다. 동시에 정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imperative that they should be banned by international agreement and we welcome every sincere proposal to this end. However, the “Stockholm Appeal”, which demands the outlawing of atomic weapons only, without effective international inspection and control, both immediate and continuous, must be regarded as a strategy of propaganda rather than a genuine peace proposal. We must seek peace by cultivating mutual confidence and work for an increasing devotion to common moral principles.

We see the judgments and warnings of God in the things which are now being wrought. As Christians it must be our purpose to “redeem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Every temptation to ease and social indifference in so tragic an age, and every tendency towards hysteria amidst the perils about us, must be resisted. We must encourage each other to bear the burdens and face the tasks of our age in the faith of Him Whose power ruleth and overruleth the actions and passions of men and nations.

Note: *The statement on The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 was adapted unanimously with the exception of the second sentence of the third paragraph which was carried by a vote of 45 to 2. Two members, conscientiously opposed to the use of military force, dissented from this sentence which reads: “We therefore commend the United Nations, an instrument of world order, for its prompt decision to meet this aggression and for authorizing a police measure which every member nation should support”.

유엔을 통해서 협상과 화해에 의한 공정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에서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한 국민의 강요된 분단은 분단된 세계의 쓰라린 결과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평화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킨다. 유엔은 국가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고 통일된 그리고 독립된 한국을 건설하려고 해 왔다. 현재의 비극적 상황에서 생기는 모든 기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한국상황은 전면전의 시작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전세계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무책임한宿命론에 대한 여하한 경향도 억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 아래서 정당한 평화를 지지하며, 정의를 확대시킴으로써 그리고 싸우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을 화해시킴으로써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

이 문서는 두 가지 점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유엔의 행동을 권고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충돌이 또 하나의 세계대전 시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반도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WCC 성명은 원자탄 및 세균 무기의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엔군의 군사행동을 요청한 WCC 성명의 현실주의는 새로 조직된 “Committee for Mediation Now”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던 미국 평화주의자들의 노력과는 크게 대립되는 것이었다. 이 중재 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유혈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평화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간디의 지도력을 이어받고 있는 네루가 미묘한 협상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므로 교회들이 그의 중재 노력을 도와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WCC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였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들이 결국 아시아를 공산주의의 손에 넘겨줄 조건으로 협상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sup>42)</sup>

위의 성명과 함께 WCC 중앙위원회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 (“Draft Letter to Korean Christians”)<sup>43)</sup>와 세계교회들이 이용할 기도문 (“A Prayer for

42) Reinhold Niebuhr, “The World Council and the Peace Issue”, *Christianity and Crisis* (August 7, 1950), pp. 107-108.

43) 이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위의 책, p. 90.

Dear Brethren in Christ,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ssembled at Toronto, Canada, desires to express its profound sympathy with the people of Korea in their present ordeal. We wish, in particular, to convey to our Christian brethren, in all parts of Korea, our sense of unbroken fellowship with them in Jesus Christ, and to assure

use by Churches in the World Council at this Time of Conflict in Korea”)을 공표하였다.<sup>44)</sup>

WCC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창립총회의 중심 문제는 이차대전 후 대결이 심화되고 있던 동서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였다. 이 총회에서 덜레스(John Foster Dulles)와 로마드카(Josef Hromadka)는 각기 서방과 동방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논쟁을 벌였으나 WCC는 계속된 토론을 통해 중앙 통제적인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체제를 거부하면서 ‘책임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두 체제를 거부

---

them of our acute concern and our prayers as they face the perils and sufferings of war.

In a world deeply divided, Christians everywhere are called to witness to the transcendent unity which is given by Christ to His Church. We reaffirm our faith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sets men free. No violence or threat by any worldly power can rob us of that freedom.

“Neithe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ure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We pray that in your bitter trial God may guide you to do His will and give you strength to endure; that in the fires of your suffering your faith may not falter; that in the midst of tumult and destruction you may be sustained by the sure knowledge that Christ has overcome the world.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hath called us unto His eternal glory by Christ Jesus, after that ye have suffered a while, make you perfect, stablish, strengthen, settle you.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 ever and ever”.

44) 기도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위의 책, p. 90.

O God, Ever-Blessed, whose will it is that all Thy children should live together in peace and amity, look down in mercy, we entreat Thee, upon those (of our brethren) in the far East on whom have now fallen the miseries and distresses of war. Fortify those who are in danger, comfort the anxious, watch over all broken and divided homes, and minister to the wounded and the dying. Save us all, O God, from those national sins which most justly expose us to Thy heavy judgments.

So curb the unruly passions now disturbing us that all strife shall quickly cease and our of these conflicts may come a new unity, and out of these sufferings a new spirit of goodwill, until all peoples are gathered together under the banner of the Prince of Peace, to whom, with Thee and with the Holy Ghost, one God, be everlasting glory and dominion, world without end. Amen.

하면서도 WCC 창설 초창기에 WCC 지도부는 수 차례 공산정부들을 비판하였다.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한국전쟁에 대한 성명이었으며, 이것은 중공교회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1948년 WCC가 창설될 때 중공교회는 WCC에 참여하였다. 1949년 가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중공교회와 WCC의 접촉은 중단되었으나 중공교회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WCC의 성명에 대한 중공교회의 비판은 격렬하였다. 1951년 4월, 151명의 중공교회 지도자들이 북경에서 주은래 수상과 회합을 가진 후 낸 선언문은, WCC의 성명이 미국국회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WCC는 “월 스트리트의 도구이자 한국전쟁의 선동자 덜레스(Dulles)의 도구”라고 비난하였다.

사악한 제국주의자들이 교회를 침략의 도구로 사용한다. 1950년 7월 WCC 중앙위원회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모여 한국전쟁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하고, 북조선 정부에게 침략자의 누명을 씌우고, 회원 국가들이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에 참가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유엔에 호소했으며, 원자 무기의 사용에 반대하는 5백만 명의 호소(The Stockholm Peace Appeal)에 반대하였다.

이 결의안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의 열망에 거역한다. WCC의 이 결의안은 미국국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WCC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이 결의안을 검토해 보면, WCC가 월 스트리트의 도구이며 한국전쟁의 선동자인 덜레스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어서 이 선언문은 “모든 지역교회, 모든 교회단체, 모든 기독교 간행물은 ‘항미원조’(抗美援朝) 프로파간다를 수행해야 하며, 이 프로파간다를 모든 기독교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sup>45)</sup> 중공에서 WCC 성명의 여파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WCC의 성명서에 대해 “「월 스트리트」의 목소리와 대단히 유사하게 들린다”고 항의했던 WCC 공동의장이자 중공교회 대표 조자진(T. C. Chao)은 1951년 WCC 공동의장직을 사임하였으며<sup>46)</sup> 중공교회는 WCC에서 탈퇴하였다. 중공교회가 WCC

45) Wallace C. Merwin and Francis P. Jones, eds., *Documents of the Three-Self Movement. Source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Protestant Church in Communist China* (New York: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1963), pp. 41-43.

46) 이 일로 중공교회는 WCC에서 탈퇴하고 연경신학대학 학장이었던 조자진은 1951년 종교의 구실 아래 미제국주의자들의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한 인물로 그리고 삼자 개혁정책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 인물로 비판받아 중공교회로부터 성직을 박탈당했다. 조자진에 대한 중공교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70-71 참조.

성명과 미국에 대해 이같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을 무렵, 미국 정부는 대만의 장개석 정권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중국 대륙의 모택동 정부와는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중국 대륙의 항의도 더욱 거세게 나타났다. 중공교회의 항의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WCC 성명에 대한 항의는 동유럽 교회에서도 일어났다. 체코 개혁교회의 신학자이며 1948년 WCC가 창설된 이후 중앙위원으로 일하고 있던 로마드카도 북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권고하는 WCC의 결정을 “현 세계의 한 쪽의 무드”에 굴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공산권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WCC가 지극히 모호한 상황에서 그 자신을 세계 강대국들의 한 그룹과 동일시하고, 그 그룹의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것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sup>47)</sup> WCC 성명에 대한 로마드카의 격렬한 항의는, 공산주의와 소련에서의 그것의 실현을 혐오하는 서방세계의 독선적인 전제가 WCC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같은 항의에 앞서 1950년 7월 헝가리 개혁교회 방문 중 “그들[어떤 정부들]은 한국국민의 문제를 중공과 소련의 참여 없이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및 한국국민의 이익에 불리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sup>48)</sup> 로마드카의 주장은, WCC가 한국 문제에서 적어도 비판적 중립의 입장을 취했어야 했으며 그 다음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제반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마드카 같은 소수파의 입장은 두 블럭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며, 자유세계에서 진정한 기독교 사회가 표현되리라는 전망을 거부하고 있었다.

WCC 내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회원교회들이 속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구호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미국교회는 전쟁 직후부터 남한의 교회와 사회에 막대한 양의 구호품과 돈을 제공하였으며, 1954년 1월에는 미국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남한을 방문하여 남한교회의 호소에 답례하였으며 미국교회의 한국을 위한 기도문을 전달하였다.<sup>49)</sup> 반면에 중공교회는 1951년 4월부터 본격적으

47) Josef L. Hromadka, “A Voice from the Other Side”, *Christianity and Crisis* (March 19, 1951), pp. 27-30.

48) Josef L. Hromadka, “We Are Responsible for Peace”, *Christianity and Crisis* (August 7, 1950), pp. 190-191.

49) “... 아버지시여! 인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으로 책임을 감당하였으며 지금도 그 책임을 지고 애쓰고 있는 형제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형제들을 위하여

로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및 인민군에게 위문품을 모아 전달하고 전지에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동유럽 교회들 역시 북조선의 구호활동을 도왔다.

---

기도하옵니다. ... 우리는 지금 저들을 생각하고 저들과 함께 비읍는 바는 지금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구름이 어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의 전문은 김양선, 앞의 책, p. 135에 있다.